

LG-Caltex가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지난 1월 2일(수) LG-Caltex가스(사장 신준상)는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전 임직원의 의지를 천명했다.

LG-Caltex가스는 2일 오후 신준상 사장을 비롯한 본사 및 기지/지사 임직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강당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내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공정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LG-Caltex가스는 그 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전 임직원에게 대한 프로그램 소개 및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

LG-Caltex가스 신준상 사장은 동 선포식에서 “회사의 비전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서, “업계 최초로 구비된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구축에서 벗어나 실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직원 스스로 ‘자율준수관리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LG-Caltex가스는 수년 전부터 정도경영을 표방하고 윤리규범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한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개최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월 9일(수) 공정거래위원회 안희원 경쟁국장, 한국공정거래협회 김용 회장, 한국백화점협회 김두중 부회장, 협력회사 사장대표 7명 등 외부인사와 임직원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신세계 백화점부문 김진현 사장은 “공정거래는 윤리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인 만큼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법규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도입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신세계가 지난 2000년부터 경영이념으로



채택한 윤리경영 중 공정거래 및 협력회사와 공존경영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에 대한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를 구축, 법 위반에 대한 자율감시 및 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임직원과 협력업체는 물론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원교육 및 전문가 양성

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실무자의 법지식 미비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서 및 점별로 년 12시간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 입사시 필수과목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점포별 공정거래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2. 자율준수편람 제작

자율준수관리자용 편람과 판매사원용 편람으로 나누어 제작하였고 자율준수 강령·체계와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의 해설을 담았다. 상황별 질문과 답변을 수록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내부시스템 구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기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법 위반행위 발생시 제재위원회를 개최해 위반자에게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